

청주시 S사범대학 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 실태 및 구강보건의식 조사 -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

지 민 경

동우대학 치위생과

색인: 구강보건관리실태,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의식조사

1. 서 론

최근 치의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구강병의 발생기전과 진행과정이 규명됨에 따라 치료보다는 예방 우선의 구강보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식 또한 변화되어 예방을 통하여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유지하고 있다¹⁾.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구강보건실태 파악과 함께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지식,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행동 양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구강보건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구강보건교육은 대부분 초·중·고교를 거치면서 학교구강보건교육의 과정에서 습득되어지나²⁾, 각 학교에 선진국처럼 모든 초·중등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³⁾, 학생

들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동을 변화시켜 구강보건관리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과정을 담당해야 할 구강보건전문 인력이 아직까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보건교사, 일선의 각 학교교사들이 구강보건교육을 맡고 있어 학교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이 도외시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들의 교육과정 중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습득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올바르게 구강병을 관리 할 수 있는 지식의 전파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⁴⁾.

이러한 구강보건 비전문인력의 구강보건교육 담당은 구강보건 인식, 지식의 전달효과나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동기화로 인한 행동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구강보건은 치과전문인력의 적극 개입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 시 효율적인 면에서는 학

급교사나 보건교사 및 학교책임자의 관심, 협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보건교사를 비롯한 학급교사들이 올바른 구강보건지식과 인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으로 파악 된다⁵⁾.

이에 대하여 Freed & Goldstein⁶⁾, Glasrud & Frazier⁷⁾ 등은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고, Lang등⁸⁾의 현직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에 대한 연구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은 학생들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역할인식도도 취업 전 예비교사들에 비하여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최 등⁵⁾의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구강보건인식 평가에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역할인식도는 긍정적이었지만, 공중구강보건사업에의 적극참여에는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학급교사 및 보건교사들이 구강보건교육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어 원활한 구강보건향상을 위해서는 학생과 근접해 있는 교사를 통해야 하고, 그들의 인식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비교사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생활하는 대학교에서 올바른 의식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의 치아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가까운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인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한 가정을 이룰 대상으로⁹⁾, 이때 형성된 성격, 인생관 및 가치관은 장년기 이후 활동의 기반이 된다¹⁰⁾.

그러나 현재 대학생의 치아건강은 대학이라는 자율성과 성인이라는 미명아래 방치되어 가고 있다¹¹⁾. 청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이나 건강행위는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시 다루어져야 하며¹²⁾, 청년기의 대학생에게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행위의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다¹³⁾. 그러므로 대학

생 중에서도 향후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및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교사인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리 실태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저자는 S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가 구강보건관리 실태 및 구강보건의식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대학생에게 적합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또한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게 될 학교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관리습관형성에 올바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주시에 소재한 S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6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6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3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방법

연구 자료는 배⁹⁾ 송¹⁴⁾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고,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직접방문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지에 포함된 조사내용은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9문항, 구강보건관리 실태 11문항, 구강보건의식 조사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1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강보건관리 실태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관리 실태 및 예방관리 실태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고,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의식 조사 및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서의 교육필요성 인지에 따른 일반적 특성도 χ^2 -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6.8%, 2학년 12.9%, 3학년 27.2%, 4학년 23.1%이었고, 1학년이 가장 많았다. 연령은 25세 미만이 84.8%, 25세 이상은 15.2%로 25세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52.6%, 여학생이 47.4%로 나타나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34.8%, 자연과학계열 32.7%, 예체능계열 32.5% 순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에서는 비흡연인 경우가 78.4%로 가장 많았고, 음주여부에서는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69.9%로 마시지 않는 경우 30.1%보다 많았다. 주성장지는 대도시 31.9%, 중소도시 68.1%로, 대부분이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 26.9%, 기타 주거는 73.1%로 나타났고, 경제 상태는 중인 경우가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항 목	구 분	인 원	백분율
학년	1	126	36.8
	2	44	12.9
	3	93	27.2
	4	79	23.1
연령	E25	290	84.8
	25G	52	15.2
성별	남학생	180	52.6
	여학생	162	47.4
계열	인문사회	119	34.8
	자연과학	112	32.7
	예체능	111	32.5
흡연여부	흡연자	59	17.3
	과거흡연자	15	4.4
	비흡연자	268	78.4
음주여부	마신다	239	69.9
	마시지 않는다	103	30.1
주 성장지	대도시	109	31.9
	중소도시	233	68.1
주거형태	자가	92	26.9
	기타 주거	250	73.1
경제상태	상	13	3.8
	중	286	83.6
	하	43	12.6
계		342	100.0

3.2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관리 실태

구강보건관리 실태에서 잇솔질 횟수는 3회 미만인 경우 42.7%, 3회 이상인 경우 57.3%로 나타났고, 잇솔질 시간은 3분 미만인 경우 79.2%, 3분 이상인 경우 20.8%로 나타나 대다수가 3분 미만 잇솔질을 하고 있었다. 잇솔질을 실시하는 시기는 식전 39.5%, 식후 60.5%로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은 회전법 58.2%, 회전법 이외의 방법은 41.8%로 대학생의 대부분이 식후에 잇솔질을 하였으나, 그 방법이 회전법인 경우가 많지는 않게 나타났다. 또한 헛솔질 여부에서는 혀를 닦는 경우가 63.7%로 닦지 않는 경우 36.3%보다 많았고, 구강위생용품 사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88.0%로 사용하는 경우가 12.0%보다 많아 거의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함유 세치제의 유용성에 대해 모르는 경우 70.5%, 인지하고 있는 경우 29.5%로 대부분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치석제거 경험이 없는 경우 56.7%, 경험이 있는 경우 43.3%보다 많이 나타났다. 치면열구전색 경험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는 경우 78.4%, 경험이 있는 경우 21.6%로 대부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섭취제한 등 식이조절을 하는 경우 8.5%, 식이조절을 하지 않는 경우 91.5%로 식이조절을 하는 경우가 적어 대부분의 대학생이 구강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식이조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구강검진 여부에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88.6%로, 하는 경우 11.4%보다 많아 대다수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관리 실태

단위; N(%)

항 목	구 분	인 원	백분율
잇솔질 횟수	E3	146	42.7
	3G	196	57.3
잇솔질 시간	E3	271	79.2
	3G	71	20.8
잇솔질 시기	식전	135	39.5
	식후	207	60.5
잇솔질 방법	회전법	199	58.2
	이외의 방법	143	41.8
헛솔질 유무	예	218	63.7
	아니오	124	36.3
구강위생용품 사용	예	41	12.0
	아니오	301	88.0
불소함유 세치제의 유용성	예	101	29.5
	아니오	241	70.5
치석제거	예	148	43.3
	아니오	194	56.7
치면열구전색	예	74	21.6
	아니오	268	78.4
식이조절	예	29	8.5
	아니오	313	91.5
정기 구강검진	예	39	11.4
	아니오	303	88.6
계		342	100.0

3.3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관리 실태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관리 실태에서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군에서 1일 잇솔질 횟수는 3회 미만 실시한다 38.8%, 3회 이상 실시한다 61.2%, 잇솔질 시간은 3분 미만 실시한다 74.1%, 3분 이상 실시한다 25.9% ($pM0.020$), 잇솔질 시기는 식사 전에 실시한다 40.0%, 식사후에 실시한다 60.0%, 잇솔질 방법은 회전법으로 실시한다 64.7%, 회전법 이외의 방법을 실시한다 35.3% ($pM0.01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헛솔질을 실시한다 63.5%, 실시하지 않는다 36.5%,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 15.3%, 사용하지 않는다 84.7%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는 군에서 1일 잇솔질 횟수는 3회 미만 실시한다 46.5%, 3회 이상 실시한다 53.5%, 잇솔질 시간 3분 미만 실시한다 84.3%, 3분 이상 실시한다 15.7%, 잇솔질 시기는 식사 전에 실시한다 39.0%, 식사 후에

실시한다 61.0%, 잇솔질을 회전법으로 실시한다 51.7%, 회전법 이외의 방법을 실시한다 48.3%, 헛솔질을 실시한다 64.0%, 실시하지 않는다 36.0%,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 8.7%, 사용하지 않는다 91.3%로 나타났다<표 3>.

3.4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예방관리 실태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예방관리 실태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자는 불소함유 세치제의 유용성을 인지 37.6%, 인지하지 못한 경우 62.4% ($pM0.001$), 치석제거 경험 51.8%, 무경험 48.2% ($pM0.002$), 치면열구전색 경험 26.5%, 무경험 73.5% ($pM0.03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식이조절 경험 10.6%, 무경험 89.4%, 정기구강검진 경험 13.5%, 무경험 86.5%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자에서 불소세치제의 유용성을 인지한 경우 21.5%,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78.5%, 치석제거 경험 34.9%, 무경험

표 3.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관리 실태

단위; N(%)

항 목	구 분	구강보건교육경험		계	p값
		유	무		
잇솔질 횟수	E3	66(38.8)	80(46.5)	146(42.7)	0.151
	3G	104(61.2)	92(53.5)	196(57.3)	
잇솔질 시간	E3	126(74.1)	145(84.3)	271(79.2)	0.020*
	3G	44(25.9)	27(15.7)	71(20.8)	
잇솔질 시기	식전	68(40.0)	67(39.0)	135(39.5)	0.843
	식후	102(60.0)	105(61.0)	207(60.5)	
잇솔질 방법	회전법	110(64.7)	89(51.7)	199(58.2)	0.015*
	이외의 방법	60(35.3)	83(48.3)	143(41.8)	
헛솔질 유무	예	108(63.5)	110(64.0)	218(63.7)	0.935
	아니오	62(36.5)	62(36.0)	124(36.3)	
구강위생용품 사용	예	26(15.3)	15(8.7)	41(12.0)	0.061
	아니오	144(84.7)	157(91.3)	301(88.0)	
계		170(100.0)	172(100.0)	342(100.0)	

* $pE0.05$

65.1%, 치면열구전색 경험 16.9%, 무경험 83.1%, 식이조절 경험 6.4%, 무경험 93.6%, 정기구강검진 경험 9.3%, 무경험 90.7%로 나타났다<표 4>.

3.5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의식 조사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의식 조사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군은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 87.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M0.000$). '구강보건교육을 참석하겠다' 68.8%, '구강보건정보 출처' TV, 라디오 대중매체 34.7%, '구강보건교육 일차적 책임' 가족 64.7%, '교과목에 구강보건교육이 삽입되어야 한다' 35.9%, '구강보건전문인력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64.1%, '교사가 된 후 학생구강보건교육에 참여한다' 77.6%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M0.011$).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잇솔질 교습 51.8%, 치아우식증 28.8%, 치주질환 10.6%, 기타 8.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경험이 없는 군에서 '교육이 필요

하다' 64.0%, '구강보건교육 참석하겠다' 59.3%, '구강보건정보 출처' TV, 라디오 대중매체 33.1%, '구강보건교육 일차적 책임' 가족 66.3%, '교과목에 구강보건교육 삽입이 필요하다' 27.9%, '구강보건전문인력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51.7%, '교사가 된 후 학생구강보건교육에 참여한다' 65.7%, '구강보건교육 내용'은 잇솔질 교습 49.4%, 치아우식증 23.8%, 치주질환 12.8%, 기타 14.0%로 나타났다<표 5>.

3.6 구강보건전문인력의 교육필요성 인지에 따른 일반적 특성

구강보건전문인력의 교육 필요성 인지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서 교육필요성을 인지하는 군은 1학년과 3학년 31.8%, 4학년 27.8%, 2학년 8.6%순으로 나타났다($pM0.001$). 성별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여학생 55.6%, 남학생 44.4%보다 많았고($pM0.001$), 흡연여부별로는 비흡연자가 80.8%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자 13.1%, 과거흡연자 6.1%순으로 나타났다($pM0.012$). 주성장지는 대도시가 38.9%($pM0.002$), 주거형태는 자가에

표 4. 구강보건교육경험에 유무에 따른 예방관리 실태

단위; N(%)

항 목	구 분	구강보건교육경험		계	p값
		유	무		
불소세치제 유용성	예	64(37.6)	37(21.5)	101(29.5)	0.001**
	아니오	106(62.4)	135(78.5)	241(70.5)	
치석제거	예	88(51.8)	60(34.9)	148(43.3)	0.002**
	아니오	82(48.2)	112(65.1)	194(56.7)	
치면열구전색	예	45(26.5)	29(16.9)	74(21.6)	0.031*
	아니오	125(73.5)	143(83.1)	268(78.4)	
식이조절	예	18(10.6)	11(6.4)	29(8.5)	0.164
	아니오	152(89.4)	161(93.6)	313(91.5)	
정기구강검진	예	23(13.5)	16(9.3)	39(11.4)	0.219
	아니오	147(86.5)	156(90.7)	303(88.6)	
계		170(100.0)	172(100.0)	342(100.0)	

* $pE0.05$, ** $pE0.01$

표 5.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의식 조사

단위: N(%)

항 목	구 분	구강보건교육경험		계	p값
		유	무		
구강보건교육 필요	필요하다	148(87.1)	110(64.0)	258(75.4)	0.000**
	모르겠다	21(12.4)	53(30.8)	74(26.1)	
	필요없다	1(0.6)	9(5.2)	10(2.9)	
구강보건교육 내용	잇솔질	88(51.8)	85(49.4)	173(50.6)	0.358
	치아우식증	49(28.8)	41(23.8)	90(26.3)	
	치주질환	18(10.6)	22(12.8)	40(11.7)	
	기타	15(8.8)	24(14.0)	39(11.4)	
구강보건교육 참석	예	117(68.8)	102(59.3)	219(64.0)	0.067
	아니오	53(31.2)	70(40.7)	123(36.0)	
구강보건정보 출처	TV, 라디오 대중매체	59(34.7)	57(33.1)	116(33.9)	0.577
	의료기관	42(24.7)	48(27.9)	90(26.3)	
	신문·잡지	15(8.8)	15(8.7)	30(8.8)	
	가족·주위사람	16(9.4)	23(13.4)	39(11.4)	
	학교·기타 교육기관	38(22.4)	29(16.9)	67(19.6)	
	보건교사	42(24.7)	37(21.5)	79(23.1)	
구강보건교육 일차적 책임	담임교사	7(4.1)	3(1.7)	10(2.9)	0.300
	가족	110(64.7)	114(66.3)	224(65.5)	
	치과전문인력	11(6.5)	18(10.5)	29(8.5)	
구강보건교육 교과목 삽입	필요하다	61(35.9)	48(27.9)	109(31.9)	0.114
	필요없다	109(64.1)	124(72.1)	233(68.1)	
구강보건전문인력 교육필요성인지	예	109(64.1)	89(51.7)	198(57.9)	0.059
	아니오	21(12.4)	25(14.5)	46(13.5)	
학생 구강보건교육 참여여부	잘 모르겠다	40(23.5)	58(33.7)	98(28.7)	0.011*
	예	132(77.6)	113(65.7)	245(71.6)	
	아니오	14(8.2)	12(7.0)	26(7.6)	
	잘 모르겠다	24(14.1)	47(27.3)	71(20.8)	
계		170(100.0)	172(100.0)	342(100.0)	

*pE0.05, **pE0.01

서 32.3%로 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M0.028)〈표 6〉.

4. 종합 및 고안

집단의 구강건강은 교육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즉 학교구강보건교육이 활

발히 이루어져야 국민의 구강건강이 향상된다²⁾. 하지만 구강보건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 학급교사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지역사회의 일정한 집단에 대하여 공중구강보건학적 원리와 방법에 따라 포괄적인 진료와 예방처치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몇 년간 지속했을 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구강보건 수준이 향상

표 6. 구강보건전문인력의 교육필요성 인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단위; N(%)

항 목	구 분	구강보건전문인력 교육			계	p값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학년	1	63(31.8)	19(41.3)	44(44.9)	126(36.8)	0.001**
	2	17(8.6)	12(26.1)	15(15.3)	44(12.9)	
	3	63(31.8)	7(15.2)	23(23.5)	93(27.2)	
	4	55(27.8)	8(17.4)	16(16.3)	79(23.1)	
연령	E25	167(84.3)	40(87.0)	83(84.7)	290(84.8)	0.905
	25G	31(15.7)	6(13.0)	15(15.3)	52(15.2)	
성별	남학생	88(44.4)	33(71.7)	59(60.2)	180(52.6)	0.001**
	여학생	110(55.6)	13(28.3)	39(39.8)	162(47.4)	
계열	인문사회	76(38.4)	12(26.1)	31(31.6)	119(34.8)	0.124
	자연과학	66(33.3)	12(26.1)	34(34.7)	112(32.7)	
	예체능	56(28.3)	22(47.8)	33(33.7)	111(32.5)	
흡연여부	흡연자	26(13.1)	15(32.6)	18(18.4)	59(17.3)	0.012*
	과거흡연자	12(6.1)	0(0.0)	3(3.1)	15(4.4)	
	비흡연자	160(80.8)	31(67.4)	77(78.6)	268(78.4)	
음주여부	마신다	136(68.7)	34(73.9)	69(70.4)	239(69.9)	0.778
	마시지않는다	62(31.3)	12(26.1)	29(29.6)	103(30.1)	
주성장지	대도시	77(38.9)	14(30.4)	18(18.4)	109(31.9)	0.002**
	중소도시	121(61.1)	32(69.6)	80(81.6)	233(68.1)	
주거형태	자가	64(32.3)	8(17.4)	20(20.4)	92(26.9)	0.028*
	기타 주거	134(67.7)	38(82.6)	78(79.6)	250(73.1)	
경제상태	상	4(2.0)	4(8.7)	5(5.1)	13(3.8)	0.166
	중	172(86.9)	35(76.1)	79(80.6)	286(83.6)	
	하	22(11.1)	7(15.2)	14(14.3)	43(12.6)	
계		198(100.0)	46(100.0)	98(100.0)	342(100.0)	

* pE0.05, ** pE0.01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은 학교인구를 주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구강건강상태에 도달 수 있다¹⁵⁾. 이와 같은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학생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먼저 구강건강관리실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현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¹⁵⁾. 이에 구강병의 예방이 가능한 시기이고, 점차 자신의

구강건강 관리에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며, 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사범대학 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 실태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중에서도 향후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및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교사인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관리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강보건관리 실태에서 잇솔질 횟수가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7.3%로 나타났고, 이결과는 배⁹⁾의 연구결과(50.6%)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헛솔질을 하는 경우 63.7%, 구강위생용품을 사용 12.0%, 불소함유 세치제의 유용성 인지 29.5%, 치석제거 시행 43.3%, 치면열구전색 실시 21.6%, 정기 구강검진 실시 11.4%로 나타났고, 배⁹⁾의 연구결과에서 정기구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경우가 90.6%로 매우 높아 대다수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대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실태가 낮은 것으로 이에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관리 실태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군에서 잇솔질을 3회 이상하는 학생 61.2%, 잇솔질 시기는 식후에 실시하는 경우 60.0%, 헛솔질을 실시하는 경우 63.5%,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하는 경우 64.7%로 많았고, 이는 김³⁾의 교육경험 군에서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실시하는 경우와 일치하였다. 장¹⁶⁾은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잇솔질이라고 보고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에서 구강위생용품을 91.3%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낮게 나타나 주¹⁷⁾의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비경험 환자 93.9%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구강용품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예방관리 실태에서는 불소세치제의 유용성 여부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군이 37.6%로 인지하고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보

다 불소사용을 실천한다고 보고 한 김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불소가 배합된 세치제로 잇솔질을 실시하면 약 15~30%의 치아우식증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¹⁸⁾, 안¹⁹⁾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내용 시 불소배합 세치제의 중요성을 어머니에게 인식시켜 자녀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에 있어 반드시 불소함유 세치제의 사용을 권장해야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군에서 치석제거 경험이 51.8%로 나타나 구강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¹⁷⁾의 연구결과에서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환자가 치석제거 주기 및 보조구강위생용품사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그 이외의 예방진료인 식이조절과 정기구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의식조사에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문항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적으로 75.4%로, 대부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희망하는 구강보건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잇솔질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치아우식증 26.3%, 치주질환 11.7%, 기타 11.4%이었고, 배⁹⁾의 보건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잇솔질 49.8%) 결과와 일치하였다.

구강보건전문인력의 필요성인지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서 전문인력의 교육필요성을 인지한 군은 1학년과 3학년 31.8%, 4학년 27.8%, 2학년 8.6%로 나타났고, 여학생 55.6%, 비흡연자 80.8%, 대도시 38.9%, 자가 32.3%로 나타났다. 학년별 세부적으로 1학년은 교육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고 한 군, 2학년은 필요없다는 군이 많았고, 3학년과 4학년은 필요하다는 군이 많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2학년인 경우는 조사 비

율이 적었던 관계로 비율의 차를 보여 후속 연구에서는 학년별 비율을 비슷하게 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로는 배⁹⁾의 연구결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구강건강에 관심이 더 높고, 주¹⁷⁾의 연구결과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구강건강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학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치과위생사가 예방업무 및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구강보건관리 실태 및 구강보건의식에 구강보건교육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각 항목에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본인은 물론 교사가 된 후 학급 학생들의 습관형성과 교사를 통한 교육적 접근성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총괄적으로 S사범대학 학생들의 구강병 예방법에 대한 관리실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의식도 단순히 구강보건관리에 관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강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이 1개 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확대와 여러 지역에서 표본이 추출되어야 하며 중·횡단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저자는 S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관리 실태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적합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또한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게 될 학교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관리습관 형성에 올바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관리 실태에서는 잇솔질을 하루 3회 이상 닦는 경우 57.3%, 잇솔질 시간이 3분 이상인 경우 20.8%, 식사 후에 이를 닦는 경우 60.5%,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하는 경우 58.2%, 헛솔질을 하는 경우 63.7%, 구강위생용품 사용이 120%로 나타났다.
2. 예방관리 실태에서는 불소함유 세치제의 유용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70.5%, 치석제거 경험이 없는 경우 56.7%, 치면열구전색 경험이 없는 경우 78.4%, 식이조절 미실시 91.5%, 정기검진 미실시 88.6%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범대학생들에게 예방진료에 대한 중요성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관리 실태에서 잇솔질을 3분 이상 실시하는 학생은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25.9%, 15.7%로 나타났다($p=0.020$),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실시하는 학생은 64.7%, 51.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5$).
4.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예방관리 실태에서 불소함유 세치제의 유용성에 대한

- 인지도는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37.6%, 21.5%로 나타났고(pM0.001), 치석제거 경험에서는 51.8%, 34.9%로 나타났으며(pM0.002), 치면열구전색 경험에서는 26.5%, 16.9%(pM0.031)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5.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의식 조사에서 '구강보건교육 필요'는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87.1%, 64.0%(pM0.000), '교사가 된 후 학생구강보건교육에 참여'는 77.6%, 65.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M0.011).
 6. 구강보건전문인력의 교육필요성 인지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서 필요성을 인지한 군은 1학년과 3학년 31.8%(pM0.001), 여학생 55.6%(pM0.001), 비흡연자 80.8%(pM0.012), 대도시 38.9%(pM0.002), 자가 32.3%(p=0.028)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7.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정확한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관리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범대학 학생에게 적합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김종배, 최유진. 공중구강보건학. 서울: 고문사:1997:34.
 2. 김수화. 경기도 K대학 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도 조사연구, 경북대학 2000.
 3. 김선숙·장종화. 중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가 치아우식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0;13(2):283-293.
 4. 장희송. 대구직할시 교육공무원들의 구강보건실태 및 보철수요도 조사, 경북치대논문집 1993;10(2):43-60.
 5. 최길라, 광경환, 정성철, 김종열. 서울시 초등학교교사들의 구강보건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0;7(1):39-46.
 6. Freed J.R and Goldstein M.S. Dental health : what is being taught to collage students, J. Am. Dent. Assoc 1976;92:940-945.
 7. Glasrud P.H and Frazier P.J. Future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and opinions about oral health and community programs, J. Public Health Dent 1988;48(2):74-80.
 8. Lang W.P, Faja B.W, Woolfolk M.W, Glasrud P.H and Frazier. P.J. Elementray schoolteacher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oral health, J. Dent 1987;66:299.
 9. 배지영. 전문대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2002.
 10. 심현주. 대학생들의 구강진료실태 조사,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2004.
 11. 임미영. 한국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예측 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1998.
 12. 박미화. 일부 간호대생의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999;11(1):97-98.
 13. 이호연. 건강증진모형을 이용한 구강건강행위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학 및 질병관리학과 석사논문 2001.
 14. 송정록. 익산시 일부 노동자들의 구강보건행태 및 구강보건교육요구도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2007.

15. O' niell. H.W. Opien study comparising attitudes about dental health, JADA 1984;109:910-914.
16. 장기완. 잇솔질교육의 집단교육방법별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17. 주은주. 전라북도 치과환자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4.
18. 김종배, 최유진, 백대일 외 4인. 예방치학. 서울: 고문사;1999:139-140.
19. 안용순, 김은숙, 임도선, 정세환, 이홍재. 성남시 어린이집 원아 어머니의 구강보건의식과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구강건강증진학회지 2000;1(1):1-12.

Abstract

An investigation on the actual status of oral health care and perceptions of oral health among the under graduates of S college of education in Cheongju-si

-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in oral health care education -

Min-Gyeong Ji

Dept. of Dental Hygiene, Dong-U College

key words : investigation on perceptions of oral health, oral health care education, the actual status of oral health care

The author aims at first securing basic material required for developing and operating proper oral health care education programs though making an investigation into the undergraduates of S College of Education on the actual status of oral health care and perceptions of oral health care education.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actual status of oral care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have experiences in taking oral health care education, undergraduates with teeth brushing for more than three minutes a time were found to be 25.9% and 15.7%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experiences in the education ($pM0.020$), and undergraduates with teeth brushing in a circular motion was found to be 64.7% and 51.7% respectively,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M0.015$).
2. In the actual status of preventative oral car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have experiences in taking oral care education, degrees of awareness of the usefulness of dental cleansers among the undergraduates were found to be 37.6% and 21.5%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experiences in the education ($pM0.001$), undergraduates with experiences in scaling were found to be 51.8% and 34.9% respectively ($pM0.002$) and undergraduates with experiences in having dental sealants were found to be 26.5% and 16.9% ($pM0.031$),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3. In the survey on perceptions of oral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experiences in oral health care educ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case that they indicated 'the necessity of oral health care education' was 87.1% and 64.0%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 experience ($pM0.000$), and undergraduates intended to 'participate in oral care education for students (at mid and high schools and so on) after being teachers' were 77.6% and 65.7% respectively,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M0.011$).
4. In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cultivating oral health professionals, groups with awareness of the necessity consisted of 31.8% of freshmen and juniors ($pM0.001$), 55.6% of female undergraduates ($pM0.001$), 80.8% of non-smokers ($pM0.012$), 38.9% of large city residents ($pM0.002$) and 32.3% of undergraduates living in their own houses ($pM0.028$),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